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분들과 나누고자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북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작품개발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drama@ntck.or.kr

창작공감 ∞ 작가
∞ 극 ∞ 감 ∞ 작가

2차 낭독회

bb

김도영

배해륜

신해연

99

2021.12.14. 화
~12.18. 토 소극장 판



창작공감: 작가

작가들의 동시대성 탐구와
희곡개발과정을 함께합니다.

동시대와 호흡할 수 있는 극작가와 새로운 창작극을
개발하기 위해 2021년,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다양성,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 디지털 전환 등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공유하고 싶은 담론들을 중심으로 아이디어
구상부터 집필의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세 명의 작가는 작품개발 과정 동안 창작활동비를
비롯하여 특강·리서치·워크숍·자문 등 필요한 여러 활동을
지원받으며, 1, 2차 낭독회를 거쳐 차기년도 공연 발표까지
창작의 전 과정을 국립극단과 협업합니다. 세 명의
작가들이 이 여정을 함께 하며 각자의 에너지를 온전히
발현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시너지가 되어 다채롭고
풍성한 이야기들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참여 작가: 김도영 배해률 신해연
운영위원: 전영지(드라마투르그)

주요일정

2021. 1.-3.	공모 및 작가 선정
4.9.	오리엔테이션
4.-11.	정기모임: 스터디 및 워크숍
	스터디 포스트 휴머니즘 장애 담론을 경유하여 동물권 동시대성, 동시대인
	워크숍 움직임, 이윤정/안무가 텍스트의 시각화, 김형연/조명·공간 디자이너 고정관념 교정연습, 권김현영/여성학자 최신 희곡 경향, 이단비/ 번역가·드라마투르그 인터뷰 기법, 은유/작가 음악과 연극, 장영규/음악감독
8.27.-29.	1차 낭독회 @JCC아트센터 콘서트홀
9.-11.	의견수렴 및 퇴고, 연출가 합류
12. 14.-18.	2차 낭독회 @소극장 판
12.	의견수렴과정
2022.3.-5.	제작공연 발표 @백성희장민호극장 희곡집 출간(예정)

함께, 반려(伴侶)를 질문해온 시간들

전영지 [창작공감: 작가] 운영위원

김도영, 배해률, 신해연 작가의 신작을 선보입니다. 작가들의 이름만으로도 소개가 충분하다고 여길 분들이 적지 않겠지만, 이번 신작 소개에는 약간의 설명이 덧붙여야 마땅합니다. 이 작품들에는 세 명의 극작가가 2021년 4월부터 지금까지 국립극단과 함께해온 시간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세 편의 작품이 유사한 주제를 다루거나 비슷한 결을 지니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동시대성’을 모토로 삼았지만, ‘국립극단이 생각하는 특정 동시대성’을 작가들을 통해 발화하고자 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작공감: 작가]는 여타의 프로그램들과 달리 주제를 특정 화두로 제한하기보다는 각각의 작가들이 ‘동시대와 공유하고 싶은 담론들’로 열어둠으로써 개별 극작가들이 바라보는 ‘동시대성’은 무엇인지 폭넓게 청취코자 했습니다. 함께 읽었던 아감벤의 글이 시사했듯, ‘지금’을 이야기한다고 하여 모든 이야기가 ‘동시대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은 아니며, 진정한 동시대인의 문제는 시간을 가필(加筆)하고 변형하며 당대의 ‘내밀한 어둠’을 더듬어 살필 때야 비로소 다가설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¹ 작가들의 탐험은 결국, 지금 현재 다루어지기를 갈망하지만 아직 언어를 갖지 못한 존재와 화두에 대한 언어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한 프로그램들은 참여 극작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끊임없이 수정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좋은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어떤 행보가 필요할지는 그 누구보다 작가 본인들이 잘 알고 있고, 혹 지금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 또한 오직 극작가들일 터, ‘주의 깊은 청취’를 운영의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작가들의 질문이 연결 단자가 되어 다음 프로그램 기획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테면, 세 명의 참여 극작가들의 시놉시스 모두에 비(非)인간 존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포스트 휴머니즘과 동물권에 관한 동시대 담론을 읽는 것으로 시작했던 스터디는 ‘나의 비인간 등장인물들은 어떻게 세상을 지각하고 감각하고 행동할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져 ‘움직임 워크숍’으로 나아갔습니다.

‘움직임 워크숍’을 시작으로 극작가 세 명은 사람들이 흔히 ‘극작가의 일’과 동일시하는 ‘앉아 쓰는 일’에서 벗어나 다른 ‘움직임’들을 시도했습니다. 희곡은 때로는 ‘글’이라고 불리며 ‘연극성’과는 무관한 듯 취급되지만, 그 안에는 이미 무대를 예비하고 있기 마련입니다.² 극작가는 무대를, 더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당대의 연극 무대를 염두에 두고 쓰기 때문입니다. 즉 초고를 쓰고, 퇴고하고, 반추하는 극작가의 시간 속에 단어나 문장뿐 아니라 몸과 색과 소리가 아른거릴 터, 홀로 겪어 내야 할 그 시간 동안 꺼낼 수 있는 언어와 감각을 경험코자 했습니다.

여성학자 권김현영과 함께 했던 ‘레몬 워크숍’³이나 은유 작가와 함께했던 ‘인터뷰 워크숍’ 또한 ‘작가의 시간’을 예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인간이든 비인간이든) 허구의 존재를 창조하여 그의 운명에 관여하는 극작가의 일은 결국 타자와 관계 맺는 일이며, 따라서 타자를 대하는 자신의 시선과 태도를 계속해서 검토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등장인물을, 그의 말과 행동을, 그리고 종국에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퇴고의 시간을 건너뛸 수는 없을 터, 이 지난한 시간을 함께해줄 매혹적인 언어와 논리를 작가들이 찾아 나가길 바랐던 것입니다.

덜 외로웠을까요? 그랬길 바라지만, 그럴 수 없음을 압니다. 원고를 붙잡고 홀로 밤을 지새우는 시간이 때때로 고독하고 불안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명의 작가들의 작품 속 주요 등장인물들이 모두 홀로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점에 마음이 술렁입니다. 그들은 잔잔한 동행 속에 서로가 서로에게 배어들기도 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근버근 함께하기도 하며, 혼자였다 생각했지만 언제나 곁에 있어 주었던 존재와 마주하기도 합니다. 결국 국립극단과 작가들의 동행 방식에 대해 고민해온 담당 프로듀서 한나래 피디와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지난 반년 동안 ‘반려(伴侶)’에 대해 질문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스터디에 함께 읽었던 도나 해러웨이의 「반려종 선언」이 떠오릅니다. 해러웨이는 그 글에서 “우리는 하나가 아니며, 함께 살아감으로써 존재”함으로 “누가 있으며 누가 생겨나고 있는지 묻는 것이 의무”라고 말합니다.⁴ 우리 안에는 누가 있었고, 누가 생겨났으며, 또 누가 찾아올까요? 이번 낭독회를 거쳐 내년 봄 공연이 올라갈 때까지 계속될 우리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올 그 누군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왔고,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왔으며,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당신-관객들이 이 문제를 직면하도록 질문할 권리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⁵

¹ 조르주 아감벤, 양창렬 옮김, 「동시대인이란 무엇인가」, 『장치란 무엇인가? 장치학을 위한 서론』, 난장, 2010, 69-88쪽.

² 안느 위베르스펠트, 이인성 옮김, 「연극 텍스트 읽기」, 『연극의 이론』, 청하출판사, 1988, 106쪽.

³ ‘고정관념 교정연습’의 일환으로, 몇 십초 동안의 관찰만으로도 ‘레몬’ 일반의 특징이 아닌 ‘나의 레몬’만의 구체성을 발견하고 기억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레몬’을 통해 구체적인 타자와의 실제적 접촉과 만남의 중요성을 체감했던 시간이라, 저 혼자 제 마음대로 ‘레몬 워크숍’이라고 부릅니다.

⁴ 도나 해러웨이, 황희선 옮김, 「반려종 선언」, 『해러웨이 선언문』, 책세상, 2019, 178쪽.

⁵ 앤 보가트, 이곤 옮김, 『그런 다음, 당신은 행동한다』, 비즈앤비즈, 2019, 11쪽.

창작 과정

스터디_동물권과 장애 담론

“직립보행과 휠체어를 탄 패러디를 보면서, 사막을 걷는 게 어떤 방식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

“동물을 통해 은유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느끼게 됐다. 내 희곡에 동물을 들여와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만들어 가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다.”

워크숍_움직임

“작가는 신체에 대한 접근보다는 언어의 측면을 더 갖고 닦아 부각시키게 되는 습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많은 작업에서 연출가들은 이미지와 스타일, 신체 언어에 주목하는데 이번 워크숍은 그 이해를 도왔다. 신체는 파편적이거나 단독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연결된 것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속제로서 인물, 세계관의 이음새를 어떻게 하면 더 유연하고 잘 짜여진 신체처럼 꾸러갈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된다.”

워크숍_고정관념 교정연습

“문학과 예술이, 나아가 나의 작품이 혹 이 시대의 고정관념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창작이 힘들어지는 때, 상상력이 고갈되는 것은 결국 나에게 고정관념들이 무수히 늘어났기 때문은 아닐까”



배해률 작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
2021.12.14.화, 12.18.토
화 19시
토 20시

* 12.14. 공연 종료 후 객석에서 예술가와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이상한 사람들의 선의를 상상한다. 그들
각자의 선의와, 그 선의가 바라보는
최선의 세계를, 그 선의가 싸워야하는
수많은 의심들을.

이건 수많은 존재들을 오가는, 오갔으면
하는 절실한 유산에 관한 이야기.

작가 배해를

주요작품

연극 <7번국도> <비엔나 소시지 야채볶음> <여기, 한때, 가가> 외

글의 출발점

늦은 밤, 피로에 절어서 지하철 출구를 터벅터벅 오르고 있었는데, 마침 슈퍼문이 떠오른다던 밤이어서 모든 감각이 절로 그 기대 이상으로 환했던 보름달을 향했고, 지하에서 슬금슬금 함께 빠져나오던 이름 모를 아무개들 역시도 모두 그러고 있었구나, 깨달아서 마음 한쪽이 조금 따뜻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런 이야기를 지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창작과정공유

과정을 거치며 ‘희곡 쓰는 나’의 기본값을 조금씩 다듬어 왔습니다. 동시대의 다양한 이슈들을 고민하며, 나의 희곡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고민했구요.

처음에는 이 희곡이 모두의 마음 한쪽이 조금은 따뜻해질 수 있는 이야기였음 좋겠다고 바랐지만, 과정을 거치며, 퇴고를 하면서는, 아 깎이고 상처 난 이들의 마음이 우선 따뜻해졌으면 했고, 그들을 훼손시킨 이들에게는 욕을, 아주 쌍욕을 퍼붓고 싶어졌습니다.

1차 낭독회 이후 관객들을 만나며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모두 건강하시길.

시놉시스

동화작가 영원으로부터 동화가 도망친다. 영원은 동화를

쫓으며, 나의 것인지 남의 것인지 모를 기억들과 마주한다. 그 사이, 동화의 안에서는 방생이라는 명목으로 버려진 작은발톱수달들이 킁킁.

만드는 사람들

작 배해를

연출 이래은

출연 경지은 권은혜

김광덕 김수량 김시영

이미라

음향 임서진

연기 자문 장재키



고대의 부모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길고 긴 가계도의 '마지막'일 거라고 여겨졌던 누군가와, 지금 여기에서 사라진 여자 친구 보리를 찾아가는 여자의 여정이 교차된다. 이미 사라진 것과, 아직 오지 않은 것 사이의 시차 속에서 '너머'를 상상하려는 시도를 그려보고자 했다.

신해연 작 <밤의 사막 너머>
2021.12.15.수, 12.17.금
수 19시
금 19시

* 12.15. 공연 종료 후 객석에서 예술가와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작가 신해연

주요작품

연극 <악어 시> <체액> <열다섯> 외
전시 겸 퍼포먼스 [이사공] <김토끼의 개념 섹스> [48시
욕망극장 - 괴물이 사는 집] <천지창조 극장> 외

글의 출발점

겨울에 도톰하고 알록달록한 양말을 신는 걸 좋아한다. 예쁜 양말을 사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신발 안에 가려져 보이지 않더라도 그런 사소한 색들이 기분을 바꾼다. 친구는 잠깐만 행복해도 살 수 있다고 말해줬다. 우리는 자주 그런 식으로, 기분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크고 거대한 삶의 조건들을 바꿀 수는 없으니, 그저 종종 양말을 샀다. 그런데 양말 하나로도 행복해지는 부지런한 우리가, 어떤 기분도 가질 수 없을 때가 있다. 도저히 이 밤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밤 말이다. 그런 밤에서 이 이야기와 인물들을 떠올렸다. 쓰는 내내 자주 무력하게 느껴졌다. 나 역시 계속해서 편지를 받아야 했으니까. 가깝거나 먼, 나의 친구였거나 혹은 친구가 될 뻔 했던 이들로부터. 쓰면서 자주, 싫어졌다. 그럼에도 그 너머에 뭔가를 떠올려보려고, 상상해보려고 노력했다. 상상 너머에 상상 같은 거. 굳이 부지런해지지 말자고. 아주 게으르게 ‘지금’을 늘려가면서 아직 오지 않은 어떤 순간을 상상해보자고.

창작과정공유

1차는 쓰는 나와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될 인물들에게만 집중했다. 처음 이 이야기를 구상하면서 떠올렸던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인물들이 어떤 것들을 만날 수 있을까 상상하며 따라가는 과정이었다. 1차를 끝낸 뒤에는 ‘공연’과 ‘관객’에 대한 고민을 중심으로 다시 수정 작업을 거쳤다. 어떤 것들이 연결 될 수 있고, 또 없는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울지를 선택하면서 최대한 ‘거리감’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거리감을 갖고 이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보냈다.

1차 낭독회 이후 관객들을 만나며

정말 이렇게까지 안 써질 일인가 싶고 도통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객석에 앉아있을 모르는 얼굴들을 상상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어줘서 정말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시놉시스

여자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한다. 누군가의 부고를 알리는 편지. 그러나 도대체 누가 죽었던 말인가? 여자는 오래된 이름 하나를 떠올린다. 한 때는 누구보다 가까웠지만 지금은 얼굴조차 희미한 나의 여자친구 ‘보리’. 어쩌면 이건 보리의 죽음을 알리는 편지가 아닐까? 여자는 뒤늦게 보리를 찾아 나서고, 그 길에서 은퇴한 바둑 기사를, 단단계 회사 리더를, 자신을 만나게 된다. 한편 보리가 머물던 방에는 이제 또 다른 보리가 살고 있다. 바로 원숭이 보리. 인간 보리의 손에 길러진 원숭이 보리는 처음으로 자신이 살던 ‘방’을 떠나 밖으로 향한다. 서로 다른 시간대, 다른 길 위에 선 이들. 그리고 여자는 걷고 걸어 무수한 도시의 방들을 지나 사막에 다다른다.

만드는 사람들

작 신해연

연출 동이향

출연 김명기, 김석기,
서지우, 안창현, 이은정,
임윤진, 정대진



“언제나 그렇듯 요즈음 이런저런 고민이 있습니다.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할 문제들 앞에서 주저하고, 위축되고, 더러는 뒷걸음질을 치기도 하며,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때로 사람들을 지나치기도 하는데, 곧잘 이름을 잊어버리는가 하면, 어떨 때는 지나쳐가는 사람의 삶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금조 이야기는 전쟁을 다루고 있지만 과거가 아니고, 금조 이야기는 금조만의 이야기가 아닌 셈입니다. 어떤 물음들과 의문들과 고민들 앞에서 <금조 이야기>는 이렇게 썼어야 할, 이렇게 밖에 쓸 수 없었습니다. 확실히 그랬습니다.”

김도영 씬 <금조 이야기>
2021.12.16.목, 12.18.토
목 17시 30분
토 14시

* 12.16. 공연 종료 후 객석에서 예술가와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작가 김도영

주요작품

연극 <햄버거 먹다가 생각날 이야기> <왕서개 이야기>

<수정의 밤> <아록과 루시> 외

연극 <붉은 낙엽> 각색

글의 출발점

피난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창작과정공유

다양한 워크숍은 현재의 <금조 이야기>에 미친 영향보다, 다른 것에 있습니다. 무엇에서부터 질문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관점이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 작가에게 있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나 출발점을 다르게 떠올릴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1차 낭독회 이후 관객들을 만나며

자신의 작품에 무조건적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작가는 아마 드물지 않을까 합니다. 저 또한! 단지 좋아서 시작한 일을 아직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얼마간의 꿈이 있고, 그냥 그렇게. 공연이 끝나고 극장을 나설 때, 잠시 혼자 있고 싶은 작품을 만들고 싶은 게 늘 저만의 작은 바람입니다.

시놉시스

1950년 6월 28일.

그날도 금조는 주인집 메밀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메밀밭은 드넓었지만, 금조가 키우는 메밀밭엔 메밀꽃도, 메밀도 자라지 않았다.

해가 정오를 막 지날 무렵, 금조는 세간을 꾸러 길을 떠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가슴이 철렁.

금조는 두고 온 어린 딸을 찾으러 주인집을 향해

내달렸지만 이미 모두 피난을 떠난 뒤였다. 침묵.

해가 지도록 점점 더 텅 비어가는 마을을 뒤지며 딸을 찾아 헤맨 금조는 가까운 곳에서 총성이 울린 뒤에야 작은 보따리를 챙겨 피난을 떠나야 했다.

금조 이야기는 그로부터 7개월 뒤, 1951년 1월에 시작된다. 전쟁의 갓길을 훑어가고, 뚫고 나아가는 금조(그들)의 피난 여정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만드는 사람들

씀 김도영

연출 신재훈

출연 강해진 김주빈

남재국 문예주 박세정

박옥출 박용수 윤성원

윤일식 윤진성 윤현길

이동준 이은지 이혜미

만드는 사람들

운영위원 전영지
참여 작가 김도영 배해률
신해연

무대기술 총괄 김무석
무대감독 김정빈 김태연
조명감독 김용주 임수연
음향감독 이병석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이정현 최윤영
마케팅 김수현
온라인 마케팅 오지수
조영채
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8기 김보연 김연정
김해든 박예지 유연지
이지민
티켓 김보배
매표안내원 김경은 김인혜
채수환
하우스매니저 김나래
하우스안내원 정진영
임지은 송솔 김지수
박주은 임지현 고계령
박소담 손유희 김민경
문채림 연희원 조세찬
최민아 한세린

홍보물디자인 리프트오프
(대표 이진우)
옥외광고 영기획인쇄
(대표 서성원)
프로필 사진 만나
사진작업실
(대표 김신중)
과정 기록 사진 만나
사진작업실
(대표 김신중)
과정 기록 영상 마크923

프로그램 디자인
키오스크키오스크
(대표 민진아)
프로그램 인쇄 청산인쇄
수어통역 공인수어통번역
잘함
한글자막 이청
문자통역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작품개발 총괄 지민주
작품개발 프로듀서 한나래
제작진행 박설아 김가은
정예림

제작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국립극단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dongdong, Jung-gu, Seoul, Korea(04534)

www.ntck.or.kr

